

도시 교차로가 이토록 아름답다니 A City Intersection Can Be Beautiful

기사입력 2013.09.13 // [이향휘 기자]
Posted Sept. 9, 2013 // By Lee Hyang Hui

美사진작가 네이든 하저 공근해갤러리 개인전 흑백 형태에 집중한 새로운 사진 예술... "삶이 조금씩 다르듯 도시 표정도 다양"

도시의 삶은 늘 반복이다. 고개를 들어 고층 건물들을 바라봐도 마찬가지다. 엇비슷한 건물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도로도 비슷한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도시의 삶에 속도를 높인다. 첨단 도시 대표 격인 뉴욕 일상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 이 도시적 삶을 색다르게 바라보는 한 젊은 사진작가가 있다. 미국 북동부 산업도시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나 7년 전부터 뉴욕에서 살고 있는 네이든 하저(36)다.

그는 왜 사람들이 물저장탱크 같은 산업 시설물이나 공장을 혐오적인 시선으로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실험했다. 흑과 백의 완벽한 대비로 형태에 집중한다면 어떤 결과를 낼까.

전시장에 걸린 그의 작품은 서정적인 드로잉을 보는 듯하다. 사진일까 싶은 작품들이 상당수다. 2007년 뉴욕 퀸스에서 촬영한 'Overpass(교차로)'는 그의 대표작으로 그가 사진을 통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는 흑백 아날로그 필름을 장착한 카메라로 같은 자리에서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찰칵찰칵 쉴 새 없이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사진 25컷을 조각조각 붙여 놓은 작품이 교차로다. 자세히 사진을 들여다보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직진하는 차량, 차선에 걸린 차량 등 다양하다. 차들도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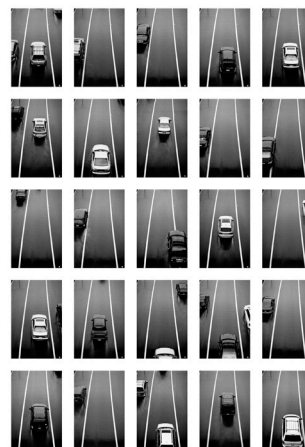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는 "우리 삶도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지 않나. 도시 이미지도 마찬가지다. 자세히 보면 사물들이 가진 독특한 개성들이 보인다"고 말했다. 도시 건물들도 디테일을 생략하고 형태만 집중하니 오히려 신선하고 서정적으로 다가온다. 그는 주로 흑백으로 작업하지만 유일한 컬러 작품이 딱 하나 벽에 걸려 있다.

뉴욕 하늘을 촬영한 작품이다. "미국 뉴욕 주변에는 공항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맨해튼 하늘을 올려다보면 늘 비행기를 볼 수 있죠."

이 작품은 교차로와 다르게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날에 걸쳐 촬영한 것이다. 그래서 하늘색이 조금씩 다르다. 미묘한 파란색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 흥미롭다.

클리블랜드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2008년 미국 파슨스대에서 디자인 석사학위를 받은 그는 졸업과 함께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미묘한 톤을 과감히 빼버리고 형태만 집중해 새로운 사진 예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국내 전시는 국경이 사라진 글로벌 미술계 트렌드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요즘 뉴욕에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어요. 한국에서 전시한다고 하니 친구들이 부러워하더군요."



Photographer Nathan Harger's first solo exhibit at Gallery K.O.N.G. is captured in black and white, and his work shows a fresh take at photography... "Just as life is a little different, so is the representation".

Life in the city is repetitious. Even if you lift your head and look up at the buildings, it's still the same. Similar looking buildings line up and stretch down the road, and similar looking vehicles jam the streets, unable to move, yet raising the energy of the city. New York City represents a very modern, state-of-the-art lifestyle. There is one photographer that sees the city in a different way. Born in Cleveland, Ohio, 36-year-old artist *Nathan Harger* moved to the city seven years ago.

I do not understand why he chooses to depict water tanks, industrial facilities, and factories. So I experimented. I wondered what can result from the use of black and white for a total contrast, and the focus on form over details.

The works on display in his show look like drawings. I wondered if the works were truly photographs. The 2007 work titled, "Overpass (Queens)" is very clear about what message the artist wanted to convey through these images.

With his black and white film analog camera, he takes photographs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at a specific location, often times standing in the same place for under a minute. It is through this very fast paced method of photography that he produced 25 images that he pieced together as one. If you look closely at the image, there are cars turning, going straight, and switching lanes. The cars all appear to be the same, but they are actually different.

I met the artist at the exhibit, and he said, "Our lives seem the same but we're all different, aren't we? Images of the city are the same way. If you look closely, everything has a unique personality." City buildings have intricate details, and there is a focus on the forms, and they give off a fresh and lyrical feel. Harger almost always works in black and white, but there is one piece featured in the show that is in color.

The photograph shows the New York sky. "New York City is surrounded by three major airports, so if you look up at the sky you can see airplanes flying above you."

This piece differs from the street intersection piece because he took various photographs from various locations in the city. This is why the color of the sky slightly varies. It is very interesting that he is able to find such ethereal shades of blue.

Harger majored in design in Cleveland, then in 2008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design. He became active as a photographer at that time, and is expanding his strides. His work is becoming an example of a global artistic trend.

"There is an increasing interest in Asia in New York. I told my friends I'm showing my work in Korea and they were really jealous."